

# 수출중소 원·달러·원·엔 환율 파고 환변동보험 가입 속속 증가

### 광주·전남 71개사 이용...1년새 2배이상 늘어

광주 하남산단내 금형 제조업체인 S공업은 지난달 연화가 반동하자 3억엔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했다.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치 일본 수출대금에 대해 100엔당 843~851원을 보장받는 조건이다. 원·엔 환율이 현재처럼 100엔당 810원대를 지속할 경우 100엔당 33~42원의 환차손이 발생하지만 보험금으로 환차손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업체는 지난 3월 연화환율이 하락하자 4~9월 입금예정인 수출대금에 대해 100엔당 821~834원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2억4천만엔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로 낸 돈은 단 돈 40만원. 보험 가입기간동안 연화 환율이 평균 810원대를 유지하면서 이 업체는 1억7000만원의 환차손을 입었지만 보험금으로 해결했다. 올들어 환율 변동폭이 커지면서 환율하락 위험에 대비해 환변동보험 제

도를 활용하는 광주·전남지역 수출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저렴한 보험료로 자칫 발생할 지 모를 막대한 환차손을 헤지(회피)하기 위해서다.

26일 한국수출보험공사 광주전남 지사에 따르면 올들어 환변동보험을 이용한 지역내 업체수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71개사로 지난해 같은기간(33개사)에 비해 2배이상 늘었다. 가입 금액도 922억원으로 전년 동기(771억원)에 비해 19.5% 증가했다.

특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등으로 환율 변동폭이 커진 지난 달 이후 환변동보험 이용 업체는 51개사로 가입금액만 416억원에 달해 올해 전체 가입금액의 절반가량인 45.1%를 차지했다.

이처럼 환변동보험 가입이 급증한 원인은 올들어 원·달러, 원·엔 등 환율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수출 기업들의 환차손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60개월까지 1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업체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보험 가입금액 100만달러를 기준으로 약 20만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더구나 월별로 환차손을 보장받을 수 있어 수출기업 입장에서 수출대금을 받을 당시 환율하락이 예상될 경우 가입하면 유리하다.

미국에 바베규 그릴을 수출하고 있는 광주 하남산단내 H전자는 올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일찌감치 지난해 10월 360만달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 9천200만원의 환차손을 보험금으로 메울수 있었다.

수출보험공사 허행만 광주전남지사는 “중소 수출기업에겐 환율 하락이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최근 환율이 장기적으로 유지될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환변동보험으로 적극적으로 환 헤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슬로바키아 경찰차 기아차 ‘씨드’ 채택

### 2010년까지 스포티지 등 4,000대 공급

기아차는 슬로바키아 경찰청에 유럽형 해치백 모델 씨드(cee'd) 경찰차 50대를 처음 전달한데 이어 2010년까지 4천대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아차는 최근 슬로바키아 현지에서 로버트 칼리나크 슬로바키아 내무부 장관, 안 파스카 슬로바키아 경찰청장, 박용규 주슬로바키아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씨드 경찰차 전달식을 가졌다.

기아차 씨드는 슬로바키아 내무

부가 ‘경찰차 현대화’를 위해 지난 7월 시행한 국제 입찰에서 스코다 옥타비아와 함께 차세대 경찰차로 선정됐다. 기아차 유럽총괄법인 이형근 부사장은 “씨드가 보수적인 유럽시장에서 현지 메이커들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우수한 상품력과 품질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아차는 이날 슬로바키아 내무부가 실시한 차량구매 입찰에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



기아차가 최근 슬로바키아 현지에서 로버트 칼리나크 슬로바키아 내무부 장관, 안 파스카 슬로바키아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씨드 경찰차 전달식을 갖고 있다. 기아차는 이를 필두로 씨드와 스포티지 등 수천대의 자동차를 슬로바키아 정부에 공급키로 계약했다. /연합뉴스

량(SUV) 스포티지가 공식차량으로 선정돼 오는 2010년까지 800대를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기아차는 “슬로바키아 정부 공개 입찰 성공을 계기로 유럽내 다른 국

가의 공식차량으로 선정되는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며 “아울러 유럽내 기아차 브랜드 강화전략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 전남 서부권 한우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협약식



# 전남 서부권 한우 경쟁력 키운다

## 전남도-농협전남본부 공동 브랜드 개발 추진

전남도와 농협전남본부가 내년 1월 출시를 목표로 ‘서부권 한우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농협전남본부(본부장 이덕수)는 전남 서부권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진·광주·나주·목포무안신안·영암·장성·해남·화순 등 8개 축협과 연계한 한우 공동브랜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일 목포무안신안축협 회의실에서 전남도 관계자 및 8개 축협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권 한우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은 대형 유통업체 등에 대한 교섭력 제고로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

해 공동 브랜드 추진이 필요함을 제공받고 브랜드 개발 등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남 서부권 한우 공동브랜드 사업은 전라남도, 농협전남본부, 8개 지역축협과 650여 한우농가(3만8천마리)가 공동사업에 참여해 한우 광역브랜드 탄생을 앞두고 있다.

농협전남본부는 지난 6월부터 서부권지역 한우농가 보호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공동브랜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수차례에 걸친 조합장 회의와 실무자 회의를 통해 목포무안신안축협(조합장 나상욱)을 주관조합으로 선정하고 조합장 운영협의회 및 실무사업단을 구성하는 등 공동브랜드 개발에 착수해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품명 위장에서 커튼치기·심지박기까지 농수산물 밀수 갈수록 지능화

## 올 상반기 415건 적발

농수산물 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커튼치기, 심지박기 등 저가 농수산물의 불법 수입 기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007년도 국감정책현안 자료집’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단독된 농수산물 밀수는 415건, 248억8천500만원 여치에 달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상반기의 392건보다 5.9% 증가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상반기의 420억1천400만원에 비해 40.8% 감소했다.

관세청은 “단속 건수가 늘어나도 적발된 사건의 규모가 적으면 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줄어들 수 있다”며 “건수로 볼 때 전반적으로 농수산물 밀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 곡물 수입액 급증

### 올 7월까지 27억달러

밀을 비롯한 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곡물 수입액이 함께 급증하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곡물 수입액은 4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무려 58.4%나 급증했다.

농수산물 밀수 단속은 2003년 530건 858억5천200만원, 2004년 437건 1천63억3천700만원, 2005년 600건 1천493억800만원, 2006년 737건 653억200만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자료집은 또 중국산 등 저가 농수산물의 불법수입 기법이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며 품명위장, 커튼치기, 심지박기 등의 수법이 활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품명위장은 관세율이 높은 품목을 관세율이 낮은 품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이고, 커튼치기는 컨테이너 바깥 쪽에는 신고물품을 적재하지만 안쪽에는 다른 물품을 은닉하는 방법이다.

심지박기는 대리석 등의 물품 속에 흙을 파서 고추 등 다른 물품을 숨기는 수법이다. /연합뉴스

1~7월 누계로는 27억1천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42.2% 증가했다. 곡물 수입액이 이처럼 급등한 것은 밀을 비롯한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맥의 국제시세는 2005년말 부של당 339.3센트였으나 작년말 501센트로 급등한 데 이어 올해들어서는 7월말 630센트, 8월말 767센트에 이어 9월초에는 840센트로 급등, 1년반만에 2배 이상으로 폭등했다. /연합뉴스

# 아시아나, 대규모 전산센터 건립

## 161억 투입...내년초 완공

아시아나항공이 글로벌 항공사 도약을 위해 대규모 전산센터 건립에 나섰다.

26일 건설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IT동건립 승인을 받아 이르면 내년 초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이 건립하는 IT동은 강서구 오쇠동에 위치한 본사 잔디밭의 5천988㎡ 부지에 들어서며 총 161억원이 투입된다.

대한항공은 김포공항 인근의 강서구 방화동에 대규모 전산센터를 별도로 운영해왔지만 아시아나항공은 광화문의 동화면세점 건물에 2개층을 빌려 전산센터로 활용하는 데 그쳐 사세 확장

과 더불어 단독건물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지는 아시아나항공의 IT동은 3층과 4층이 전산운영실과 전산장비실로 쓰이고, 1, 2층은 사무실과 회의실, 그리고 지하는 전기실과 기계실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이같은 전산센터 건립은 급증하는 항공운송 수요와 항공업무의 전산화 확대, 예약 등의 데이터 보관과 처리를 위해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보유 대수를 현재 61대에서 2011년까지 77대까지 늘려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을 노리고 있어 자체 전산센터 건립은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체납처분 회피자 50명 조사 광주국세청 64억 징수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정병춘)은 올 상반기에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50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64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체권을 확보하는 등 괄목한 성과를 거뒀다.

유형별로는 현금징수 36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28억원이었다. 전국적으로는 455명에 대한 조사 결과 전년 동기보다 520억원 증가한 1천441억원의 체납추적 성과를 기록했다. 또 광주국세청의 경우 올 상반기의 체납발생총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72억원 감소한 반면 현금징리실적은 220억원 증가했으며 미정리체납액은 525억원 축소됐다. 결산처분액도 209억원 감소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적전담팀을 구성하고 시민감시시스템을 구축, 은근재산을 철저히 파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株)행복출판**

행복출판은 100% 유기농이민농산물입니다.

자선그대로... 우리밥에 좋은 유기농산물입니다.

장수/흔/삼/밥

100% 유기농이민농산물

행복출판 (062) 527-3388

**100% 유기농이민농산물**

**장수/흔/삼/밥**

자선그대로... 우리밥에 좋은 유기농산물입니다.

행복출판 (062) 527-3388